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부위의 표현유형과 특성 : 2001S/S~2008S/S를 중심으로

Express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Body Parts Shown in Modern Fashion Design: Focused on from 2001S/S to 2008S/S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신체부위를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인의 특성 |
| II. 현대패션과 신체 | V. 결론 |
| III.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부위의 표현유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xpress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fashion designs using body part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of fashion magazines publish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from 2001 to 2008. Four fashion statements predominated. Most frequently, body parts presented in modern fashion design, included realistic expressions, simplification, anatomic expression and a mixture with other patterns and logos. A body part, such as an eye, a lip, a hand or a chest was characteristically located in an unfamiliar position, as part of modern fashion design using body parts. Other parts and surrealist images were shown with accessories utilizing body shapes. Second, amusing images were emphasized with humorous expressions, including simplification of body parts, childish decorations, fairy tale illusions and cartoon factors. Third, erotic images were presented with a more realistic expression of a partial image of a female body part, such as a lip or a tongue. Fourth, the use of facial images of celebrities in modern fashion design showed the phase of the times and the characteristic utilization of pop art as an image.

주제어(Key Words) : 신체부위(body part), 초현실성(surrealism), 유희성(Pleasure), 에로티시즘(eroticism), 팝아트성(pop art)

I. 서론

패션은 현대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기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현상들은 의사소통의 코드이자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특히 문화 예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념 또한 다양한 문화, 사상적 층위를 바탕으로 한 여러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대패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요소와 원리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다양하고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패션은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체는 신체자체가 전달하는 의미와 신체를 매개체로 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하는 상징성을 지녔으며 이것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는 현대사회에 있어 종속적이고 물질적 대상이 아닌 예술표현의 주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나면서 그 미적 조형성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신체형상을 패션디자인의 요소로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한 초현실주의를 시작으로 신체는 있어야할 곳에 있지 않고 낯선 곳에 위치하기도 하며 대상의 안과 겉이라는 모순된 양면을 동시에 하나의 화면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인식에 변화는 신체자체에 대한 관심과 고정관념에 대한 탈피로 이어져 현대패션에 있어 신체의 조형성이나 신체 각 부위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들이 전개되고 있다.

신체와 관련된 선행연구(김소영, 이병화, 2004; 은숙, 이연희, 박재욱, 2007; 이재운, 김민자, 2007; 임지아, 최경희, 김민자, 2007)는 주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것이나 인체의 조형미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 패션아트에서의 몸의 왜곡과 변형에 관한 것 또는 신체부위의 이동표현을 통한 초현실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 표현의 분석에 관한 것은 예술작품에 재현된 신체 표현과의 비교를 통해 1990년대 작품을 위주로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권기영, 2001; 권기영, 조필교, 2000; 권기영, 조현주, 2002)만이 많아졌다.

오늘날 인간의 몸 위에서 표현되는 패션의 내적의미 및 외적표현은 절대적인 문화의 표현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패션의 경향이 패션디자인의 독창성 추구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실험함으로써 패션의 영역을 넘어 예술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패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신체부위의 다양한 표현유형과 그 특성에 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이상적인 신체의 미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를 추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장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신체에 대해서까지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찰되고 있고 또 패션 속에 내재하는 디자인의 한 요소로까지 수용되어 새로운 표현의 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 부위의 표현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표현되는 특성을 통해 현대패션에 있어 신체의 의미에 대해 재인식하고 신체 각 부위의 조형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티브의 광범위한 개발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독창적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영역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현대패션과 관련된 신체의 이미지와 조형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고찰하고, 신체표현유형과 이를 통한 미적특성의 분석을 위해 2001S/S부터 2008S/S까지의 Gap, Fashion News, Mode & Mode, Vogue 등 국내외 패션 잡지와 컬렉션 지 등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 시기는 현대패션의 경향이 다원화되고 특정 스타일보다는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2000년 이후로 하였고, 전신을 제외한 눈, 입술, 손, 얼굴, 가슴 및 등체 등 신체 부위의 형상을 디자인으로 조형화 한 작품으로 한정하여 총 124점을 분석하였다.

II. 현대패션과 신체

현대사회의 문화예술 전반에 있어 신체는 인간의 삶과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고 인간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으로서의 중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육체성의 부활은 곧 이성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인간 정체성 회복의 부단한 몸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 예술의 한 영역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패션 특유의 시각적 특성은 착용자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가꾸고 의복을 착용하는 방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신체에 대한 가치관과 미적 감각, 사고방식 등 신체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20세기 초에 미술과 패션의 미학적 담론은 몸과 의상을 미술의 매개체로 사용해 3차원적 표현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감상으로서의 예술의 개념과 신체를 감싼다는 의상의 기능성이 접목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몸을 위한 예술, 몸의 다양한 이미지를 살린 조형작업의 한 형태로서 패션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허정선, 2007). 신체가 간직한 기억이나 신체

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적합한 표상방식은 이미지를 매개로 하게 되는데, 20세기 후반부터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를 지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발흥아래 철학과 예술분야에서 신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면서 인간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미적 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1988년 열린 Robert Mapplethorpe의 전시회는 이제까지 서양문명의 가치기준이 되어왔던 규범들을 전복하면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신체를 조형화하였는데(Nicholas, 1999, p. 15) 신체를 도구로 하여 성, 인종, 정치적 갈등 등을 나타낸 그의 작품들은 신체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여 당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신체이미지를 성형해 내는 새로운 의학기술의 진보와 성정체성을 규정해 왔던 많은 규범들의 붕괴들은 신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전환에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권기영, 조현주, 2002).

이러한 신체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화, 조각 등 여러 장르의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과거부터 끊임없이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다원주의적 현상 등이 해체주의, 페미니즘과 연관되어지면서(권기영, 조필교, 2000)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라 절단과 분해, 해체 등 파편적인 개념을 수용함에 따라 사람의 몸과 신체 각 부위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각되었고, 학문 및 예술, 문학 등에 있어서는 보편적 인간이나 계층으로 파악된 인간의 이미지가 아닌 개별적 인간의 신체와 특수성을 다룸으로써 인간의 신체 이미지를 파편화하기도 한다. 특히 얼굴이나 손, 입술 등 신체 각 부위는 내?외면적 현상의 표현으로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며 메시지의 전달이나 유희성 또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현대패션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몸 또한 더 이상 인간 주체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꿈을 기탁하는 대상으로서 신체는 소비사회의 욕망을 환기시키는 매개체로 현대패션에 표현되기도 한다(박파랑, 2005, p. 28).

Baudrillard가 '신체는 의도적으로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되며, 동시에 심리적인 의미에서 물신 숭배된다.'고 하였듯이 현대 소비사회에서 신체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며, 현대소비사회의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이상이며, 날씬함과 아름다움은 아무런 자연적 친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사회의 기호체계는 이를 절대불가분의 것으로 표준화하고 신비화하고 있다(Baudrillard, 1997, p. 188).

그리고 현대패션에 있어 신체는 정체성의 혼란과 부재의 문제를 다루는 근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신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조작과 변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모하였고, 매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상업적, 의학적, 성

적 대상으로 위상을 바꾸었다. 또한 첨단 의학기술의 진보는 유전적 조작마저도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몸에 대한 자연적 정체성은 그 위기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하겠다(임은혜, 2007). 또한 패션 디자인 역시 기존의 복식 형태와 입는 방식을 탈피한 탈신체화의 경향을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의 표현과 방식으로 등장하여 복식은 몸의 사실적 재현이라기보다는 복식과 몸 사이의 관계를 떠나 다양한 조작과 변형을 통해 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과거 서구의 복식사에서 19세기까지 옷은 신체와의 사이에 조형기능을 담당하는 내부구조인 속옷을 끌어 들여 새로운 조형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대사회에 있어 패션은 단지 수동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변해가는 것으로서 표현된다(Fukai, 2005, p. 30). 즉 패션이란 가시적인 표면층으로서 허구적인 신체에 관한 논의이며, 신체 그 자체가 강력한 표현성을 가지고 신체의 패션화 현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하겠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신체가 보다 넓은 이상의 재현으로서 이바지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현이 보다 효과적인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던의 단일한 신체와 포스트모던의 분열된 신체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듯이(Nicholas, 1999, p. 19) 현대패션에 있어 신체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 문화적 이미지를 가진 신체로 재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Ⅲ.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부위의 표현유형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부위의 표현은 대부분 패턴의 모티브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티브들은 옷 위에 직접 프린트되거나 몰딩기법, 콜라주 등을 통해 표현되며, 신체의 각 부분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또는 전체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01S/S부터 2008S/S까지의 국내외 패션 잡지와 컬렉션 지에서 전신을 제외한 눈, 입술, 손, 얼굴, 가슴 및 동체 등 신체 부위의 형상을 이용하여 디자인으로 조형화 한 작품 총 124점을 분석하였고, 동일사진인 경우 신체 부위의 표현이 보다 선명하고 정확할 표현을 나타내는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기법이나 표현유형을 위해 인터넷자료의 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표현유형의 분류는 현대패션디자인에 있어 신체부위의 표현 대부분이 패턴의 모티브로 나타나는데 주목하여 의복의 장식적인 디자인에서 문양의 표현방법에 따라 유형화한 선행연구의 분류를 참고로 하였다. McJimsey(1973)는 자연적, 기하학적, 양식적, 추상

〈표 1〉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표현유형별 신체부위의 빈도

표현유형	신체부위					
	눈	입술	손	얼굴	가슴 및 동체	계(%)
사실적표현	1	8	6	18	3	36(29)
단순화표현	5	16	3	30	6	60(48)
해부학적표현			2	3	7	12(10)
혼성적표현		5	4	7		16(13)
계(%)	6(5)	29(23)	15(12)	58(47)	16(13)	124(100)

적으로 구분하였고, 이은영(1997)은 사실적, 약화, 기하학, 추상적 표현으로, Davis(1990)와 이호정(2002)은 사실적, 양식적, 추상적, 기하학적 표현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권기영과 조현주(2002)는 현대패션디자인에서 신체표현의 양식을 사실적, 단순화, 해체 및 기형화, 해부학적, 의인화와 사물화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01S/S부터 2008S/S까지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부위의 표현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실적 표현, 단순화 표현, 해부학적 표현, 다른 형상이나 로고와의 혼성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표현유형에 따른 신체 각 부위별 빈도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단순화 표현이 6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1990년대 패션에서의 신체표현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실적 표현 29%, 다른 형상이나 로고와의 혼성 표현 13%, 해부학적 표현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 각 부위 중 얼굴이 47%, 입술이 23%, 가슴 및 동체 13%, 손 12%, 눈 5%의 순으로 나타나 1990년대 패션에서의 신체표현에서 가슴 및 동체, 전신, 얼굴, 입, 눈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1. 사실적 표현

사실적 표현이란 어떤 대상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드로잉 기법이나 실제 사진을 이용한 프린트 등을 통해 사실감과 극적인 조형성을 나타내게 된다. 어떠한 오브제에 대한 관찰을 통한 모방은 예술의 기원이 되는데, 특히 인간 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된 서구의 회화는 르네상스 이래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회화를 해부학과 광학에 연계시키며 균형, 조화, 원근법을 탐구함으로써 인간표현의 전통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사실주의적 과학성에 근거한 여러 기법들은 공간 표현과 명암에 의한 모델링과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인체묘사를 발달시켰다(권기영, 조현주, 2002). 특히 복식에 있어 신체는 중요한 표현의 직접적인 대상인 동시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모티브라 할 수 있으며, 사실적으로 신체를 재현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신체의 모습과 구조에 대한 시각적인 유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패션에 있어 신체의 사실적인 표현은 주로 프린트나 몰딩기법을 통해 보다 강한 사실적 재현성을 나타낸다 하겠다.

〈그림 1〉은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형상을 나타내는 나체프린트의 보디슈트로 사실적이면서도 원시적인



〈그림 1〉 Icarus, 2002F/W (Vogue, 2002. 5)



〈그림 2〉 Alexander McQueen, 2007F/W (Gap, Vol.76)



〈그림 3〉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01F/W (Vogue, 2001.5)



〈그림 4〉 Emporio Armani, 2007S/S (Gap, Vol.73)



〈그림 5〉 Giles, 2008S/S (Gap, Vol.79)



〈그림 6〉 Betty Jackson, 2003S/S(2003 Fashion Insight)



〈그림 7〉 Cheap & Chic, 2008S/S (Vogue, 2007.12)



〈그림 8〉 Yves Saint Laurent, 2002F/W (L'Officiel, 2002.4)



〈그림 9〉 Yves Saint Laurent, 2002F/W (L'Officiel, 2002.4)



〈그림 10〉 Moschino, 2004S/S (Vogue, 2003.12)



〈그림 11〉 Clements Ribeiro, 2004F/W (Vogue, 2004.5)



〈그림 12〉 Seredin&Vassiliev, 2001F/W (Mode&Mode, N,316)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적 표현은 가슴 및 동체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림 2〉와 같이 가슴 형태를 표현한 금속 코르셋은 입체감 있게 제작됨으로써 사실적 감각을 한층 높여준다. 입체적인 표현기법이라 할 수 있는 몰딩은 어떤 모형을 만든 뒤 여기에 녹인 금속이나 유리 등을 주입하여 성형시키는 작업으로 여성의 가슴과 유두를 바디 몰딩 기법에 의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려져 있어야 할 신체부분이 가시적으로 외부에 표현됨으로써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함께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하겠다. 또 〈그림 3〉과 같이 원피스 전면에 눈을 프린트하거나, 〈그림 4〉와 같이 관능적인 입술을 프린트 하는 등 단일 신체 부위를 모티브로 사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그림 5〉와 같이 유명모델인 Kate Moss의 얼굴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원피스 전면에 흐릿하게 표현하여 상업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 단순화 표현

단순화되고 약화된 표현은 문양의 모티브를 실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즉 모티브를 단순화 시키거나 입체적 사물을 평면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강조한 것으로 실제 모티브의 인상을 인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형의 변환 등을 시도하여 특징만을 살려 표현한 것이다.

패션에서 신체를 이용한 단순화의 표현은 신체의 구조적 형태보다는 특정 신체부위의 형태 자체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간결성과 명료성을 표현하게 된다. 신체의 형태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단순화의 표현은 사실적 표현을 위한 기교에서 벗어나 생략을 통해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도상을 사용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은숙 외,

2007) 이러한 도상은 일종의 초월적 의미를 가진 도형으로서 오늘날 신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축약해서 표현해 준다. 이러한 단순화 표현은 현대패션에서 신체부위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양식으로 평면적이고 단순함을 주는 단점은 있으나 다양한 모티브의 크기조절이나 반복 등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내는데 보다 용이하다 하겠다. 또 단순화의 표현은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유행의 흐름에 덜 영향을 받으며 신체부위를 간략화 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권기영, 조현주, 2002). 특히 얼굴과 입술의 형태를 이용해 단순화한 표현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신체부위는 그 형태의 특성상 표정이나 형태의 변화, 기법 등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림 6〉은 얼굴모습 일부분을 단순화하여 티셔츠 앞면에 도입함으로써 장식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고, 〈그림 7〉 역시 스커트 전면에 훔날리는 머리카락과 옆얼굴을 단순화시켜 나타냄으로써 만화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 〈그림 8〉과 같이 얼굴의 주요형태만을 살리고 세부적인 표현을 생략하여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그림 9〉와 같이 입술의 형태만을 살리고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하여 유희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신체의 부위 중 가장 관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입술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그림 10〉과 같이 원피스 전면에 자유롭게 반복 배치하여 패턴화 시킴으로써 유희적이고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3. 해부학적 표현

신체를 왜곡하거나 해부학적으로 해체하여 기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현대미술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식으로 이러



〈그림 13〉
Seredin&Vas
siliev
2001S/S
(Gap, Vol.34)



〈그림 14〉
Marjan Pejski,
2002F/W
(Fashion at the edge,
p.242)



〈그림 15〉
Under Cover,
2005F/W
(Vogue, 2005.5)



〈그림 16〉
Christian Dior,
2005S/S
(Vogue, 2005.5)



〈그림 17〉
Paul Smith,
2003S/S
(Vogue,
2002.12)



〈그림 18〉
Eley
Kishimoto,
2006S/S
(Gap, Vol.67)

한 표현양식은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대상의 실제 형태를 바꾸거나 일그러뜨려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현대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로 인한 인간 신체 내부에 대한 관심의 확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의 제공,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존재의식 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권기영, 조현주, 2002) 현대 예술에 있어 표현영역의 확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부위 중 얼굴이나 가슴 및 동체를 이용해 해부학적 표현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11〉은 가슴과 골반에 이르는 신체내부의 X-Ray사진을 프린트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마치 현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신체내부를 직접 촬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12〉는 신체내부의 골격과 내장기관까지를 프린트하여 괴기스러운 느낌을 준다.

현대사회의 미 개념은 과거에 획일화된 미적 가치기준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 넓게 확대되어 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혐오스러운 것 또한 미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질적 요소의 결합, 왜곡, 극단, 과장을 통한 일련의 부조화,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웃음과 공포, 재미와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양면적인 모순구조로 이루어진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장미숙, 양숙희, 2000) 평범한 것에 대해 무감각한 현대인에게 시각적 충격을 유발하고 또한 패션디자인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13〉과 같이 의복 위에 신체의 근육조직들을 단순화 시켜 덧붙이거나, 〈그림 14〉와 같이 티셔츠 위에 해골의 형상을 비즈장식으로 화려하게 표현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상반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프린트나 화려한 비즈장식 외에도 〈그림 15〉와 같이 펠트소재를

이용해 해골모양으로 오려낸 후 이를 목주위에 감아 연출하여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4. 다른 형상, 로고 등과의 혼성 표현

현대사회 전반에 흐르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영향으로 패션의 경향 역시 변화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고, 패턴의 문양 역시 서로 다른 이미지의 형상 그리고 로고 등과의 혼성적인 표현을 통해 새로운 형상의미를 창조해 내거나 나타내고자하는 메시지의 표현을 더욱 강조하게 되기도 한다.

〈그림 16〉은 'Dior, Not War' 라는 문구와 함께 주먹을 쥔 형상의 손 모양을 티셔츠에 프린트하여 반전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 빈부와 환경문제, 전쟁반대 등의 메시지를 직접적 문구와 함께 신체의 상징적인 형상을 혼합하여 그래픽의 형태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보다 강하게 전달하게 되며 패션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그림 17〉 역시 'Eat Chocolate' 라는 문구와 함께 초콜릿이 번져있는 듯한 형상의 입술과 혀를 반복적으로 스커트 전체에 프린트하여 팝아트이미지와 동시에 유희적이미지를 나타낸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인간소외와 단절, 부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풍자된 사물을 소비하게 되는데, 패션을 통한 풍자성의 표현은 주로 인간소외와 물질만능 풍토에 대한 사회 풍자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패션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은 코드화 된 형태가 아닌 개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동적인 형태로 표현되며(김인숙, 김경옥, 1999), 이런 정체성의 표현에는 신체부위의 표현과 그래픽의 방법의 혼성을 통해 상징적



〈그림 19〉
Ungaro,
2003S/S
(Fashion
News,
vol.84)



〈그림 20〉
Ylang
Ylang,
2008S/S
(Gap,
Vol.80)



〈그림 21〉
Henshall,
2002S/S
(Vogue,
2001.12)



〈그림 22〉
Comme des
Garçons,
2007F/W (W
Korea, 2007.
5)



〈그림 23〉
Bernhard
Wilhelm,
2002S/S
(L'Officiel, 2001.
12)



〈그림 24〉
Miu Miu, 2008S/S
(Gap, Vol.79)



〈그림 25〉
D&G
2003F/W
(Vogue,
2003.5)

표현의 다양성, 유머적 표현, 풍자 등의 조형적 특성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또 〈그림 18〉과 같이 꽃문양과 하트, 치아와 입술 등 원색적인 컬러의 다양한 패턴들을 서로 혼성시켜 패턴화 함으로써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림 19〉와 같이 비대칭라인의 이브닝드레스 위에 번지는 듯한 느낌의 수채화 프린트 안에 입술모양을 시큰과 비즈로 장식하여 다른 패턴과 조화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더하기도 한다.

IV. 신체부위를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인의 특성

1. 초현실성

패션에 영향을 미친 많은 예술사조 가운데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예술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정신의 해방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20세기 조형예술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 이 용어는 1917년에 공연된 시인 Apollinaire의 희곡 ‘띠레시아의 유방(Les Mamelles de Tiresias)’의 서문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초현실주의가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Andre Breton이 제 1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한 1924년부터이다. 이 선언문에서 초현실주의란 순수한 심적 자동현상으로 이성이 개입되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심미적이며 윤리적인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고를 기술하는 것이라 하였다(은숙 외, 2007).

패션에 있어서 초현실주의 경향은 1930년대에 Elsa Schiaparelli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녀는

Dali, Jean Cocteau 등과 같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과 패션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꽃, 나비, 구두, 입술 등 평범한 주변의 사물들을 단추나, 모자, 액세서리 등으로 이용하여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조형미를 부여하였다. 또 Richard Martin은 그의 저서 ‘Fashion & Surrealism’에서 현대디자이너들의 초현실적 의상의 특성 중 하나로 몸과 몸의 부분에 대해서 논한바 있듯이 초현실주의자들은 몸의 모든 부분을 분리시켜 응용하였다(Richard, 1988, p. 48).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져 현대패션에서 초현실적인 오브제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눈, 입술, 손, 가슴 등이다. 초현실주의 오브제는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은폐와 노출,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눈은 복잡성을 지니며 소망과 의지에 따라 그 기능이 주체이며 또 객체가 될 수도 있는 동시성을 갖는 부위라 하겠다(그림 3). 즉 의식적인 시각과 무의식적인 환상, 바라보기와 훑쳐보기 등 눈은 신체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또는 얼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갖게 한다. 또한 입술은 초현실주의의 가장 관능적인 상징물로서 〈그림 4〉와 같이 점점 사실적이고 장식적으로 변화하면서 표현되고 있거나, 〈그림 20〉과 같이 커다란 오브제로 드레스 위에 장식되어 관능적이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또 손 역시 〈그림 21〉과 같이 원피스 위에 가슴을 감싸는 형상으로 덧대어지거나, 〈그림 22〉와 같이 옷깃을 여미는 포즈의 장갑 낀 손의 모양으로 재킷의 여밈 부분에 덧대어 위트 있는 초현실적 이미지를 나타



〈그림 26〉
Jean Charles de
Casteljard,
2001F/W (Vogue,
2001.5)



〈그림 27〉
Marc Jacobs,
2008S/S (W
Korea, 2007. 12)



〈그림 28〉
Jean Charles de
Casteljard,
2006F/W (Vogue,
2006.5)

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신체의 각 부분이 있어야할 곳에 있지 않고 낯선 곳에 위치하며, 신체형상을 이용한 액세서리, 또 신체의 속과 겉이라는 모순된 양면을 동시에 옷이라는 하나의 화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 유희성

유희성이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충동의 발산을 위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다(김선영, 2007). Schiller는 예술의 본질을 유희에 두었는데(양희석, 1988, p. 40), 이러한 웃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미적 다원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들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웃음 뒤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한다.

패션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개인의 감성을 표현하게 하고 또 각자의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한다. 현대패션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로 놀람과 웃음을 느끼도록 하며 심각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유희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복잡한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문화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고, 놀람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신체부위를 이용한 현대패션의 경우 신체부위의 사실적

표현보다는 단순화나 만화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유희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유희의 중요한 특징은 자연스러운 것 바로 자유이며, 유희의 즐거움은 억압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그 자체로 즐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23〉과 같이 익살스러운 형상으로서의 신체부분의 단순화와 위치변화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거나, 〈그림 24〉와 같이 원색컬러로 구성된 피에로 분장의 프린트 의상, 〈그림 6〉과 같은 만화적인 요소의 표현 등은 인간감성의 자연스러운 표출로서 유희적인 즐거움을 나타낸다.

즉 신체부위를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인의 경우 의상의 전체적인 외형에 있어 신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실루엣이나 디자인 요소들의 과장, 변형, 왜곡보다는 패턴의 모티브로서 신체부위의 단순화나 유아적인 장식, 동화적인 환상 등 유머러스한 표현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의복의 기능성이나 과시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감각의 표현으로 어떠한 분석이나 논리적 해석을 거부하는 개성표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정신적 추구로서 타인을 향한 자신의 내비침과 내보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심리적 표현행위가 갖는 특징, 즉 성적 태도로 요약되는데 성에 대한 갈망, 혹은 열정, 성에 대한 친화력, 성애적 표현 등이 본질로 설명된다(이경화, 한명숙, 1999). 패션에서의 에로티시즘은 복식의 단순한 신체보호라는 기능적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기표현으로서 성적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현대패션에 있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여성신체의 부위는 입술, 가슴, 목, 허리, 허 부위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Elsa Schiaparelli와 많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작품에 눈과 입술과 같은 인체의 부분적인 이미지에 대해 그 인식을 달리하고 에로티시즘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패션의 소재로 사용하였다(임지아 외, 2007). 이러한 표현을 기점으로 현대에 와서 육체 및 성의 해방을 표방하면서 육체의 재발견이 행해지고 있는데, 성적 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파편적인 시각은 다양한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나타내게 하였다.

많은 신체부위 중 입술은 가장 관능적인 상징물로 〈그림 10, 18〉에서와 같이 단순화의 표현을 통해 유희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림 25〉와 같이 입술, 벌린 입, 치아, 혀, 붉은 립스틱의 사실적인 표현으로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레드 컬러는 에로틱한 힘을 가진 색으로서 체온을 상승시키고 호르몬의 연쇄반응을 촉진시키며 심장박동과 호흡까지 빨라지게 하는 등 인간의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Marilyn Monroe의 밝고 싱싱한 입술은 수많은 남성들에게 육감적인 느낌을 불러 일으켰으며, Grace Kelly의 열은 빨간색 입술은 그녀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한껏 돋보이게 하였다(오희선, 1997, p. 153). 이와 같이 붉은 입술은 인간 내면의 에로틱한 감정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현대패션에 있어서도 그래픽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에로틱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또 패션에 있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신체노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의 착용동기가 단순한 기능적이라는 개념이 바뀌면서 인간은 자기표현으로서 성적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를 노출시킴으로서 자신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직접적인 노출 대신 몸에 달라붙는 바디슈트 위에 가슴, 유두, 음부의 표현까지 사실적인 신체의 프린트를 통해 노출된 신체보다 더 강한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그림 2>와 같은 몰딩기법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된 가슴 역시 에로틱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돌출된 가슴은 성적인 유희와 함께 현대사회에 있어 여성의 파워를 과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인체의 조형미나 에로티시즘과 함께 여성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의미한다하겠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신체의 조형에 주력하기도 하고, 신체 각 부위를 이용하여 그 표현기법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의 전개와 함께 에로티시즘의 이미지 전달을 다양화하고 있다.

4. 팝 아트성

1960년대 Andy Warhol의 Marilyn Monroe, Elvis Presley와 같은 대중스타들의 얼굴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들은 팝아트, 대량생산과 소비, 대중문화와 같은 이미지들로 대중들의 머릿속에 인식되기 시작했고 현대패션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개시켰다. 인간의 얼굴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회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미지로서 표현되는 인물들의 행동표현이나 표정 등은 인물내면의 감정을 이끌어내 인간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임지아 외, 2007).

특히 현대사회의 기술의 발전으로 이룩된 그래픽 혁명은 증폭된 이미지의 동조현상이 발생하는 틀을 제공하였고, 현대패션디자인에 있어 얼굴이나 신체 각 부위의 표현을 간단하고 쉽게 또는 <그림 5>와 같이 실제인물의 모습을 다양한 변형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다. <그림 26>은 미니멀 한 원피스 위에 Andy Warhol의 얼굴을 프린트한 것이고, <그림

27>은 Elisabeth Taylor의 눈매만을 이용하여 헤어 액세서리로 이용한 것으로 팝아트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그림 28>은 영국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Diana 비, Kate Moss, Winston Churchill, Victoria여왕 등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인들의 초상화를 이용한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작품이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있어 물신주의 사상이나 미디어, 상업주의와 결합한 유명인들의 얼굴 이미지를 이용하여 팝아트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 사회의 시대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의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 그들과 동일시되고자 하는 허상의 풍자적 표현이라 하겠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부위는 팝아트적디자인의 모티브나 패턴으로 여겨지면서 그 의미나 뜻은 사라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 감각적이고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연출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V. 결 론

현대사회에 있어 인간의 몸은 그 자체의 자유로운 욕망을 다양한 분야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 신체 그 자체의 기능이나 조형성, 이미지는 패션을 통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 부위의 표현유형과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대패션에 있어 신체의 의미에 대해 재인식하고 신체 각 부위의 조형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티브의 광범위한 개발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독창적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영역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함께 2001S/S부터 2008S/S까지의 Gap, Fashion News, Mode & Mode, Vogue 등 국내외 패션 잡지와 컬렉션지에서 전신을 제외한 눈, 입술, 손, 얼굴, 가슴 및 동체 등 신체 부위의 형상을 이용하여 디자인으로 조형화 한 작품 총 124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부위는 대부분 패턴의 모티브로 나타나는데 그 표현유형은 단순화 표현 6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실적 표현 29%, 다른 형상이나 로고와의 혼성 표현 13%, 해부학적 표현 10%의 순으로 나타났고, 신체 각 부위 중 얼굴이 47%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입술이 23%, 가슴 및 동체 13%, 손 12%, 눈 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유형은 첫째, 사실적 표현은 얼굴, 눈, 입술, 가슴 등 신체의 각 부위를 드로잉 기법이나 실제 사진을 이용한 프린

트, 몰딩기법 등을 통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감과 극적인 조형성을 나타냈다. 둘째, 단순화의 표현은 얼굴이나 입술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의 형태를 사실적 표현을 위한 기교에서 벗어나 생략을 통해 간략하게 표현하여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셋째, 해부학적 표현은 현대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로 인한 인간 신체 내부에 대한 관심의 확산, 그리고 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혐오스러운 것 또한 미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는 현대패션의 미적가치기준의 변화에 따라 신체내부의 골격이나 내장기관 등을 프린트하거나 장식화시켜 표현하였다. 넷째, 혼성적 표현으로 신체부위의 형상과 다른 이미지의 형상, 로고 등이 그래픽티의 형태나 프린트, 비즈장식 등을 통해 혼성되어 상징적 표현의 다양성, 유머적 표현, 풍자 등의 조형적 특성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현유형을 나타내는 현대패션디자이너는 초현실성, 유희성, 에로티시즘, 팝아트성의 이미지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져 현대패션에서 초현실적인 오브제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눈, 입술, 손, 가슴 등이다. 신체의 각 부분이 있어야할 곳에 있지 않고 낯선 곳에 위치하며, 신체형상을 이용한 액세서리, 또 신체의 안과 같이라는 모순된 양면을 동시에 옷이라는 하나의 화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둘째, 신체부위를 이용한 현대패션의 경우 신체부위의 사실적 표현보다는 신체부위의 단순화나 유아적인 장식, 동화적인 환상, 만화적인 요소 등 유머러스한 표현을 통해 유희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의복의 기능성이나 과시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감각의 표현으로 어떠한 분석이나 논리적 해석을 거부하는 개성표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파편적인 시각은 다양한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특히 붉은 입술과 혀는 인간 내면의 에로틱한 감정을 이끌어 내는 한 수단으로 현대패션에 있어서도 그래픽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에로틱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넷째, 유명인들의 얼굴이미지를 이용하여 팝아트적 이미지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 사회의 시대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의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 그들과 동일시되고자 하는 허상의 풍자적 표현이라 하겠다. 즉 신체부위는 팝아트적디자인의 모티브나 패턴으로 여겨지면서 그 의미나 뜻은 사라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 감각적이고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연출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대패션은 신

체의 내적의미나 신체조형에 주력함과 동시에 신체 자체를 도구로 삼아 문양이나 장식물 등 가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오브제로 인식하였고 모티브화 함으로써 현대인의 욕구와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패션에서 신체부위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전개는 직물의 문양으로서의 프린트 또는 부조적인 표현의 보조적인 장식물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체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이용하여 보다 새롭고 독창적이며 예술적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발상이 요구된다 하겠다. 패션과 예술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상호협력력을 통해 새로운 아트모드를 창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디자인의 전개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며 주체적 자아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보다 인간중심의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의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권기영(2001).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기영, 조필교(2000).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53-78.
- 권기영, 조현주(2002).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표현 분석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7), 173-191.
- 김선영(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래픽티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학회지**, 31(5), 777-787.
- 김소영, 이병화(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4(3), 129-143.
- 김인숙, 김경옥(1999).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연구. **복식**, 47, 143-160.
- 박파랑(2005). **Visions of the Body 2005**.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 양희석(1988). **예술철학**. 서울: 자유문고.
- 오희선(1997).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 은숙, 이연희, 박재옥(2007). 초현실주의 오브제를 모티브로 한 다목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1), 68-80.
- 이경화, 한명숙(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1), 128-140.
- 이은영(1997).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재운, 김민자(2007).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문양의 대화형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 57(6), 101-111.
- 이호정(2002).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 임은혁(2007). 탈신체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고찰. **복식**, 57(4), 70-80.
- 임지아, 최경희, 김민자(2007). 복식에 나타난 얼굴, 사람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복식**, 57(9), 76-87.
- 장미숙, 양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436-499.
- 허정선(2007). 20세기 현대미술과 패션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2), 189-203.
- Baudrillard, J.(1997). **소비의 사회**. 이상률(역). 서울: 문예출판사. (1970년 원저발간)
- Davis, M. L.(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공역). 서울: 경춘사. (1980년 원저발간)
- Fukai, A.(2005). **Vision of Body 2005**.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 Mcjimmy, H. T.(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USA: Iowa states univ press.
- Nicholas, M.(1999). **바디스케이프**. 이윤희, 이필(공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5년 원저발간)
- Richard, M.(1988). *Fashion & Surrealism*. London: Thames & Hudson.

접 수 일 : 2009년 5월 18일

심사시작일 : 2009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7월 20일